

기록을 홀대하면 역사가 앙갚음한다: 대학 史庫의 존재 이유와 사명

김기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기록관리실장



1.

금년 4월, 서울대학교 기획실의 내부 기구로 대학기록관리실이 창설되었다. 대학의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생산된 각종 공식·비공식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한 기구이다. 앞으로 원래 의미의 大學史庫(University Archives, 또는 대학기록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간 단계의 기구이다. 대학 설립 50년이 지나도록 서울대학에는 대학기록을 관리할 전담기구가 없었다. 그 결과, 개교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할 각종

공적·사적 자료 대부분이 그 소재조차 알 수 없거나, 알려진 자료도 국내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국내 대학의 경우 고려대학이 1970년대 후반 일본 와세다 대학의 교사자료실을 참고로 하여 도서관 부설기관으로 교사자료실을 만들어 학교사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역사자료실을 창설하여 대학 내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학교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몇 대학에 유사기구가 있으며, 대체로 고려대나 이화여대의 경우처럼 학교사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기록관리실은 학교사 자료를 포함하여 대학운영과

관련되어 생산된 기록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史庫를 지향하는 기록관리 전담기구이다.

대학사고란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관이나, 외국의 경우 명문 대학은 대부분 기록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은 1636년 대학 창설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50여 년간의 주요 기록을 모두 대학사고에 보존, 관리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8할 이상에 전담 기록관리기구가 있다. 미국기록관리사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에는 대학사고분과(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Section)가 따로 조직되어 대학기록 관리업무의 선진화에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쿄 대학은 개교 100주년 기념 학교사를 간행한 후 대학사료실을 설치하여 10여 년 운영하고 있다. '86년 일본에서 대학사 편찬에 종사한 전문가들은 대학간 협력을 위해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준비하다 지난 '96년 62개 대학의 기관회원과 20명의 전문가들이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대학사자료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앞으로 각 대학에 사고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서울대학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사고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힌다.

2.

서울대 기획실은 '96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매 10년마다 해온 것처럼, 2년여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서울대학교 50년사』를 간행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사를 편찬하는 관행을 다시 반복하

였다. 학교사 간행의 최대 난점은, 학내 “교사자료실의 부재로 인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이었다. 편찬위원들은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과 국립기록보존청(National Archives)을 찾기도 하였다. 10년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곧 이를 망실하고 다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다섯 번 반복한 것이다. 서울대학은 그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대학기록의 보존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97년 여름 기획실은 60년사 편찬시 다시 자료를 새로 수집할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즉, 기록이 생산된 시점부터—기록을 수집, 발굴 및 보존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서울대 내에 외국의 기록관 형태를 갖춘 기관은 1993년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내에 설치된 韓國教育史庫뿐이었다. 당시 기획실장 장달중 교수는 사고의 책임자였던 필자에게, 학교사 자료의 집성을 포함하여, 대학기록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 보고하도록 과제를 주었다. 기획실은 과제 수행을 위해 임시기구로 “대학사료실”을 설치하고 박물관 공간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약 반년여 연구 끝에, 필자는 『서울대학교 기록보존 사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검토한 대학 당국은 대학 안팎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학기록관리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 설립 52해 만에 기록관리 전담기구가 생긴 것이다.

필자는 서울대 기록관리 방안을 제안하기 앞서 다음 5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① 관련법규를 검토하였다. 서울대학은 국가 공공기관이므로 행정문서는 모두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는 현행 법적 제도적

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② 학내 기록관리 관련자 협의회의를 소집하였다. 기록보존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본부 주요 행정부서의 담당관들과 함께 현행 문서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문회의는 주요 행정부서장과 관련교수들이 참여하여, 현행 대학기록 보존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③ 학내 소장 기록 발굴을 위해 기록조사를 시행하였다. 박물관에서 개교 50년 기념 전시회를 위해 수집한 각종 유물과 자료 가운데 전시 중인 것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이관 받았다. 학생지도 담당 교육관이 정년 퇴임하면서 기증한 학생운동 관련 기록도 이관 받았다. 행정부서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대학기록들을 확인하였다. 기록 보존 상태는 부서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났다.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기록은 학적부와 건물의 시설도면으로서 모두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되었다. 서울대의 전신학교로 볼 수 있는 경성제대 등 10여 개 전문학교 학적부도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 학교 연혁지, 학장회의록, 총장 문서 등 주요 기록이 여러 창고에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생과에, 담당직원도 모르는 채 보존되어온 '60년대 이후 학생운동 관련 기록을 발굴하였다. 이 중에는 1965년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관련 기록이 남아 있었다.

④ 국내외 대학사고 사례를 검토하였다. 고대와 이대 외에, 외국의 사례로 미국과 일본 대학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대학사고는, 학교사 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학기록 보존 및 관리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독립 상설기구임을 확인하였다. 대학 운영과 관련, 주요한 기록은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대학사고로 이관되어 종합적으로 관리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⑤ 미국의 대학사고분과 소속 회원인 현직 대학기록관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다.

서울대 현행 기록관리의 문제점은 다음 5가지로 요약된다. 이 문제점은 비단 서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대학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① 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대학 차원의 관리규정이 없다. '사무관리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보존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 운영상 주요한 정책관련 회의록이나 총장 등 주요 정책 결정자 혹은 집행자의 사적 기록, 교수나 직원들의 개인적 기록 등과 같은 기록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학교사를 편찬할 때마다 기록 수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이후 법적 문제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② 기록을 전담 관리하는 상설기구가 없다.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공문서를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 서무계이다. 문서이외 다른 형태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없다. 각 부서별 문서관리제는 업무분장에 불과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아니다. 기록을 행정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그 기록이 갖는 역사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③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관리전문가(archivists)를 양성

하는 전문 학위과정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매년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대학기록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④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외국의 대학사고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컴퓨터센터와 같은 수준의 전문기구로서 독립된 공간, 적절한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각 행정부서의 창고는 기록보존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아니다. 기록보존에 적절한 장비를 갖춘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⑤ 기록의 활용에 관한 일관된 방침이 없다. 그 동안 보존된 문서기록은 대부분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에 의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학기록의 부서간 활용, 학교사 편찬을 위한 대학 기록의 활용, 대학사 혹은 교육사 연구에의 활용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졸업생, 학부모 또는 관심 있는 국민이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이를 충족시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대학이 수행하는 3대 기능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이다. 대학의 교육 기능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가르치고, 평가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이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매년 방대한 기록이 생산된다. 입시관련 기록, 교육과정 기록, 시험 및 성적 기록, 졸업 기록 등이다. 대학의 교육은 수업 이외의 장면에서도 이루어지며, 각종 행사, 학생

활동 등도 넓은 의미의 교육 및 학습 활동에 포함된다. 대학의 연구 기능과 관련하여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논문 발간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들이 생산된다. 대학의 사회봉사로 는 산학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강좌, 전시회, 시설 공개, 학생 봉사활동 등 제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활동들의 계획 및 실행, 평가단계의 기록들이 생산된다. 한편 기록은 회의록, 기안문서, 실행계획, 안내서, 평가보고서, 증명서, 강의록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며, 이는 각각 그 목적에 따라 교육, 연구,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각 단계에서 사용된다.

대학기록은 다음 4가지 가치를 지니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① 내재적 가치가 있다. 기록은 대학의 활동과 기능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② 행정적 가치가 있다. 대학 행정의 전례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일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한다. 요즘처럼, 대학이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과 같은 내부 개혁을 도모할 경우 혁신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③ 법적 가치가 있다. 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학내외 법률적 쟁송사건(화재, 도난, 인명 관련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④ 사료적 가치가 있다. 학교사 간행과 기타 대학 관련 연구의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대학기록의 관리란 문서관리나 학교사 사료관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존될 기록에는 공문서나 회의록과 같은 문서뿐만 아니라 간행물, 강의계획서와 노트, 음성 및 영상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기록은 학교사 편찬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학교발전계획 수립에 활용되며, 각종 연구 및 교육활동의 기초자료가 된다. 요컨대, 대학기록이란 대학의 설립과 발전,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생산된 재반 공문서, 비문서, 유물, 개인문서 등을 통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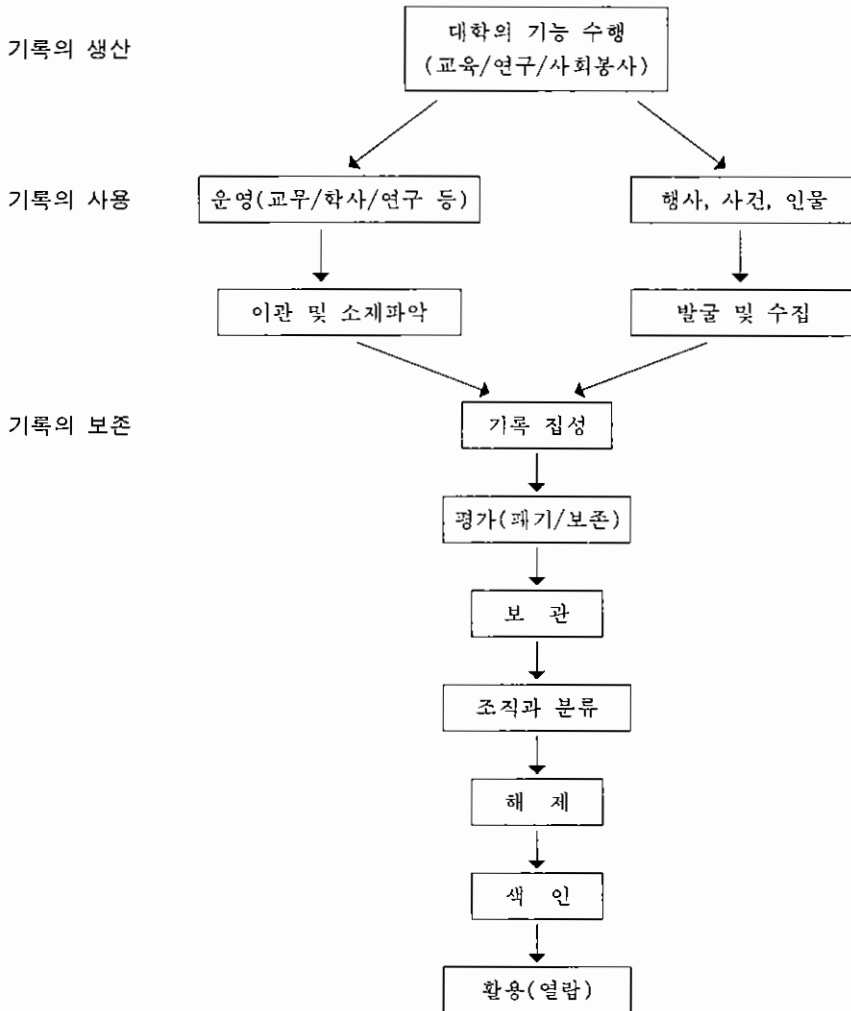
대학기록의 구성 요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의 설립과 관련된 제 법령들, 대학에 관련된 제 규정을 담고 있는 문서, 주요 회의록, 본부 및 단과대학의 각 부서별 행정문서(공문, 사업계획서, 보고서 등),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서신 및 기록, 학내 위원회의 회의록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 기록, 학적기록(입학기록, 성적증명서, 졸업자 명부 등), 교육과정 기록(개설과목, 시간표,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시험문제 등), 교수, 직원, 학생 및 졸업생의 명부, 정년퇴임교수 개인기록, 학생회나 학생단체 관련기록, 동창회 기록, 입학사정위원회 보고서, 학생활동 관련 기록, 대학 이름으로 배포된 모든 출판물, 신문, 소책자(안내서, 연감, 각종 신문, 교직원 수첩, 동창회보, 임시 발간물 등), 대학발전을 담은 시청각 자료(스틸 사진, 사진원판, 비디오 필름, 구술자료, 시청각 비디오 등), 대학 지도 및 건축도면, 캠퍼스 조성 관련기록, 연구과제 계획서, 계약서 및 최종 보고서, 외국 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 관련 자료, 학교사 관련 사료와 유물 등등이 있다.

대학기록의 관리란 기록을 생산한 부서에서 사용이 끝난 기록 가운데 법적, 행정적, 사료적 가치를 지닌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뜻한다. 대학의 각 부서는 학기별 혹은 연간사업의 종료시, 사업운영과 관련되어 생

산된 기록 중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록들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문서는 보존 및 폐기된다. 폐기 대상 문서이나 기록상의 가치 때문에 폐기되지 않고 업무 담당자의 서랍이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흔하다. 대학기록관리는 생산된 기록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기록의 보존 및 폐기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존될 기록을 보관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사용이 끝난 기록들이 총괄적으로 집성되어야 한다. 이는 물리적인 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의 소재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행정기록이나 기록을 생산 사용한 기구가 분명한 경우에는 기록의 소재 파악이나 이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및 발굴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두 경로를 통해 기록은 집성된다. 대학기록의 생산, 활용 및 보존의 순환을 개념도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

서울대학은 물론 국내 다른 대학의 기록 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가칭 “대학 기록관리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대학 차원에서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통일된 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학 내 주요 행정부서와 같은 기록 생산기구나 현행 상설 및 비상설 보존기구에 모두 적용될 관리 지침이 될 것이다. 우리



〈그림〉 대학기록의 순환 개념도

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법령과 제도가 없다. 현행 ‘사무관리규정’과 관련 시행 세칙으로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기록이나 보존 관리해야 할 기록을 선별, 수집, 보관 및 활용할 수 없다. 가칭 “국가기록보존기본법”의 제정은 정부 수립 이후 숙원 사업이었다.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금년 내 이 법이 제정될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기록은 국가 수준에서 제정된 국가기록물 관리체계에 맞게 보

존 관리될 것이다.

다음, 대학기록관리 방안과 구체적 방침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와, 정해진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록관리 방안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가칭 “대학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 기록관리 전담 기구로 대학사고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원회에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정책결정 기구로 대학의 행정조직 및 부속기관에서 이루어질 기록관리

업무를 지휘 감독할 권위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기록을 수집 보관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해당 부서에 기록 이관을 명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상이 낮을 경우 기록관리규정에 따르지 않는 문서관리 업무와 관행을 시정하도록 할 수 없다. 위원장의 법적 행정적 위상은 위원회의 위상의 근거가 되므로 위원장은 대학 행정 위계상 높을수록 좋다. 외국 대학의 경우 기록관리 전담기구를 총장 직할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 행정 부서장이나 도서관장이나 박물관장의 직할로 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학이 고려 중인 위원회 구성방안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실장, 학내 기록의 생산 및 보존 기관인 도서관, 박물관, 매체제작소, 대학신문사 및 기록관리실 부서장과 기타 기록관리 유관 학과의 교수 등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안이다.

기록관리 집행기구로 교사자료실을 둘 수도 있으나, 외국 대학처럼 독립 전문기관인 대학사고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史庫는 본래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국가기록을 보관하던 기구이다. 사고에 보존되어 온 조선조 500여 년 중요 국가기록의 일부는 현재 서울대의 규장각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및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 왕조의 중요 문서기록을 이처럼 잘 보존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 다만, 근대 이후 특정 시기부터 기록보존의 전통은 훼손되었다. 이의 복원은 시급한 민족적 과제이다. 대학기록을 보존하는 기관을 사고로 칭함으로써, 기록의 망실을 막기 위해 사고를 두어 기록을 보존 관리해왔던 우리 조상들의 기록보

존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는 대학 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행정 기록과 학교사 관련 사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발굴, 보관,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대학사고는 기록관리 방안에 의해 이관된 행정기록을 분류·조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관된 기록들을 기록이 생산된 생산지별로, 생산 순서에 따라 분류 및 보관하게 된다. 각 기록에 해제를 작성하고, 이를 색인화하여 기록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한편, 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록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거나, 전산화하는 등 기록 보존에 필요한 전문적인 처방을 취한다. 사고는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대학 기록을 보존하는 보존소의 역할을 한다. 기록은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사고는 기록 보존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 수장고와 보존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대 기록관리실은 이 번 여름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여 기본 공간인 기록수장고, 업무공간 및 열람실을 설치할 것이다. 대학의 목적 및 기능, 역사적 변천을 드러내주는 기록에는 자동적으로 이관 관리되는 행정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기록이 포함된다. 서울대 기록관리실에서는 개교 50주년 이전의 기록, 즉 기록관리 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된 기록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기록을 모두 전산화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종합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학내 각종 정보를 전산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가동되면 일정 조건의 행정기록도 사고에 자동 이관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실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과 계속적으로 수집 발굴한 기록 또한 연차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구상이 예정대로 수행되면, 서울대학은 5년 이내에는 국내 최초 최고의 사이버 사고(Cyber Archives)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이버 사고는 일종의 전자기록관인 셈이다. 전자도서관과 같이, 사용자는 열람 제한이 없는 모든 기록을 인터넷을 경유하여 국내외 어느 곳에서도 원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형태로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는 미국 대학사고의 경우에도 그리 많지 않다. 서울대학이 비록 기록관리 전담기구 설치에는 매우 뒤늦었으나, 후발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정보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자기록관을 구축할 것이다. 대학사고는 얼핏 과거를 위한 기관인 듯 보이나, 실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구이다.

'90년대 후반 들어 정부나 관련학계, 유관 기관에서 역사기록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일련의 새로운 조짐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를 위시한 기록보존 기관, 관련 학계 등이 합심하여 기록보존법 제정운동을 벌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서울대학에 개교 이래 처음으로 대학사고에 근접한 기관이 설치된 것 또한 그러한 새로운 흐름의 한 지표이다. 최근 이러한 동향은 마치 역사기록보존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를 방

불하게 한다. 대학은 이 흐름을 장기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조만간 기록보존법이 제정되고 국가기록관리 제도가 실시될 것이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국·공립 대학은 물론 각급 학교에서도 기록관리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또 전문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법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기 전에 각 대학에서는 기록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IMF 체제 아래, 대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혁신을 도모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별 대학 변천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반성이다. 기록 없는 역사적 반성은 불가능하다. 역사가 앙갚음하기 전에 대학기록을 잘 보존하여 새로운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건설에 함께 매진할 것을 제안한다. ■

김기석/서울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컨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고, 기획실 대학기록관리 실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고 본부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부장 겸 자료조사 연구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교육사회학탐구1』, 『교육사회학탐구2』 (이상 편저) 등이 있고, 『한국 근대 교육의 형성』(1997), 『광무제의 주권수호 외교』(1995)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